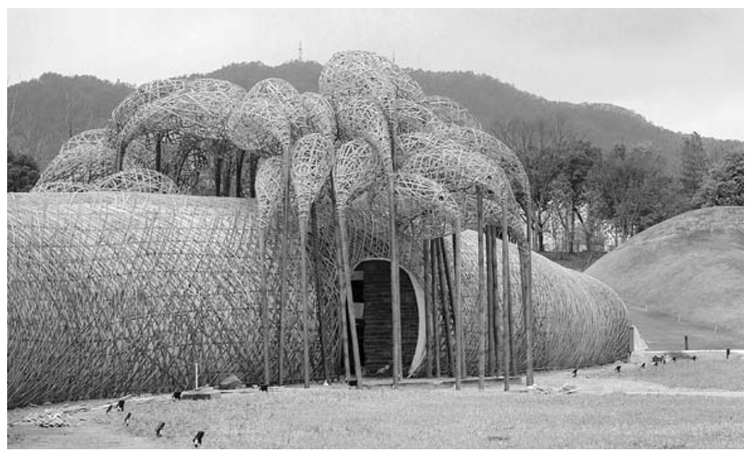
AI·애니메이션 결합…'우주인도 놀러오는 순천' 대공개

내달 1일 정원문화산업도시 선포…스페이스 공간 오픈
2천여명 참여 애니벤저스 퍼레이드·두다하우스 등 눈길



순천시가 순천만국가정원에 인공지능과 애니메이션 컨셉을 입혀 '우주인도 놀러오는 순천'을 4월1일 공개한다. 사진은 순천만국가정원에 접목한 두다다쿵 캐릭터(좌측부터 다다, 두다, 까버, 스캣)와 우주인 조형물 조감도·두다하우스(오른쪽) 모습. 〈순천시 제공〉

순천시가 순천만국가정원에 '우주인도 놀러오는 순천' 컨셉을 입혀 4월1일 대공개한다.

27일 순천시에 따르면 오는 4월1일 오전 10시 순천만국가정원 개막식을 스페이스 허브(남문광장)에서 개최한다.

2023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 성공 개최로 전국적인 벤치마킹 대상이 된 순천시는 국가정원의 우수한 아날로그적 요소 위에 애니메이션 등 문화콘텐츠를 더하는 한편, 인공지능(AI) 등 최첨단 디지털적 요소를 덧입히는 작업을 완료했다.

이번 개막은 대한민국 제1호 정원도시로서 선도적인 역할을 해온 순천시가 정원에 AI와 문화콘텐츠를 더해 정원문화산업도시로 새로운 도약을 선포한다는 점에서 더욱 의미 있다.

스페이스 허브는 동문과 서문을 잇던 유휴공간을 새롭게 단장한 곳으로 4천700평에 달하는 광활한 광장으로 재탄생했다. 우주선이 내려앉은 모습의 '스페이스 브릿지'와 새롭게 조성된 '스페이스 허브'는 어린이들의 꿈을 우주로 상징되는 미래로 실어 나른다는 의미를 담았다.

개막식 볼거리도 풍성하다. '우주인도 놀러오는 순천'이라는 주제로 24개 읍면동 대표 캐릭터를 활용한 '애니벤저스 퍼레이드'를 시작으로 정원문화산업도시 선포식, 어린이·청소년·청년 연합 퍼포먼스가 개막식 참석자들의 눈과 귀를 즐겁게 만들 전망이다.

특히 2천여명의 시민들과 함께 스페이스 허브 활주로에서 펼쳐지는 육상·수상 퍼레이드 콜라보는 어디에서도 볼 수 없었던 특별한 경험과 즐거움을 선사할 예정이다.

EBS 인기 애니메이션이자, 산림청 '숲으로 가자' 홍보대사인 '두다다쿵'도 국가정원에 접목했다.

'두다다쿵'은 장난스럽고 호기심 많은 두더지 캐릭터 '두다'가 탐험가 친구들과 함께 떠나는 여행을 주요 모티프로 한 애니메이션으로 전 세계 50여개 국가에 배급될 정도로 글로벌 인지도를 갖춘 작품이다.

화려한 색감과 다채로운 표정으로 관람객의 호기심을 자극하는 '두다다쿵' 캐릭터와 우주인 조형물은 순천의 새로운 CI를 더해 '우주인도 놀러오는 순천'이라는 컨셉을 표현했다.

새롭게 조성된 '두다하우스' 역시 눈길을 끈다. 두다하우스의 외관은 자연주의 환경예술가 박봉기 작가의 작품으로 구현했다. 자연을 소재로 '대자연의 순환'이라는 의미를 구현하는 박봉기 작가는 이번 작품을 통해 '생명의 시원'이 되는 순천의 자연을 아름답게 표현했다.

노관규 시장은 "이번 개막식은 정원문화산업도시라는 순천의 새로운 비전을 널리 알리는 특별한 행사가 될 것"이라며 "순천의 우수한 아날로그적 정원 위에 문화콘텐츠와 최첨단 디지털 기술을 더해 어디서도 볼 수 없었던 색다른 경험을 선물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순천만국가정원은 4월1일 개막을 시작으로 연중 운영될 계획이며, 매월 마지막주 월요일은 휴장한다. 관람료는 일반 성인 기준 1만원, 순천시민은 2천원으로 순천만국가정원과 순천만습지를 모두 관람할 수 있다. /순천=정기 기자

장흥군이 최근 중국 우란차부시를 방문해 우호교류 도시 협약을 체결하고 참석자들이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장흥군 제공〉

장흥군·中 우호교류 도시 '문화·경제' 우호 다졌다

중국 해염현·장흥현 방문 등 우란차부시 우호 협약 체결
관광 교류 추진…농수산물 수출 등 판매·홍보관 설치 합의

장흥군이 최근 7일간 중국 우호교류 도시를 방문해 '문화·경제' 국제 사회 진출의 입지를 다졌다.

27일 장흥군에 따르면 지난 17일부터 23일까지 김성 군수, 왕윤채 장흥군의회 의장을 비롯한 10여명의 관계자들이 국제 우호교류 도시인 중국 절강성 해염현과 장흥현을 방문했다.

김성 군수는 각 지자체장을 만나 협력 방안을 모색하고, 오는 7월27일 열리는 '제17회 정남진장흥물축제'에 대표단을 초청했다.

장흥군은 지난 2006년 중국 절강성 해염현과 우호도시 협약을 체결하고, 꾸준히 교류를 이어왔다.

앞으로도 양 도시 간 교류 확대와 우의 증진을 위해 '남북호' 재청별장의 김구 선생 피난처에 '장흥군 청소년 해외역사 문화탐방'과 연계한 교류를 추진하기로 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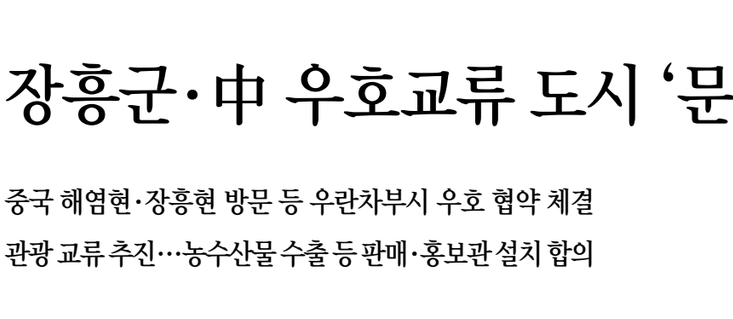
또 역사, 문화, 관광 교류 추진, 농·수산물 판매 확대를 위한 중요 행사 판매장 및 홍보관 설치 운영 등 크게 3가지 사항에 합의했다.

장흥군과 지명이 같은 장흥현은 지난 2015년 우호교류 도시 협약을 체결했다. 장흥현은 장흥군에서 생산된 제품 8개 품목을 5천만원 이상 수입해 장흥군 특산물의 해외 진출 가능성을 확인시켰다.

이번 방문에서 장흥군은 내몽고자치구 우란차부시와 새롭게 우호교류 도시 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농·축산업, 문화·예술, 경제, 관광, 민간 교류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을 확장하고, 양 도시간의 상호 혜택을 극대화하며 도시 간 유기적인 연계를 강화하기 위한 다양한 계획이 포함됐다.

김성 군수는 "국제 사회와의 긴밀한 소통이 지역 발전에 도움이 될 것"이라며 "국제 도시들 간의 우호 협력을 강화하고 농·수산물 수출 등 실질적인 성과가 나타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장흥=노형록 기자



광양시 환경교육센터 문 열었다

시민 맞춤형 환경교육 제공

광양시는 "최근 시민들에게 친수공간, 생태체험, 생활에서 실천할 수 있는 시민 맞춤형 환경 교육을 제공하기 위해 환경교육센터를 개관하고 현판 제막식을 개최했다"고 27일 밝혔다. 〈사진〉

시는 그동안 환경오염에 대한 체계화된 교육 장소가 없던 점을 고려해 마동 생태공원 내 방문자센터를 리모델링해 환경교육실 및 전시·체험실을 만들었다.

유아에서 노인까지 생애주기별 맞춤형 학습자료를 개발해 환경 교육 접근성을 높이고 환경 교육 전문인력을 양성하는 교육 프로그램을 실시할 계획이다.

광양시는 환경교육센터의 전문적인 관리를 위해 공모를 통해 선정한 사단법인 기후환경네트워크에 운영을 위탁했다.

센터 운영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이며, 사전 예약을 통해 체험 등 원하는 교육을 신청할 수 있다. /광양=양홍렬 기자

곡성군, 기후변화 대응 소득작목 '만감류' 육성

재배단지 0.7㏊확대…3억 자금 조성 농가지원

곡성군은 27일 "옥과농협과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새로운 소득작목으로 '만감류'를 육성한다"고 밝혔다.

만감류는 수확 시기가 늦은 감귤류, 한라봉, 천혜향, 황금향 등을 말한다.

곡성군은 지난 2019년 '지역활력화작목기반 조성 과수분야 공모사업'에 최종 선정, 2020년부터 2023년까지 천혜향과 레드향 등 총 2종의 만감류 특화단지 2.8㏊를 조성했다. 올해는 만감류 재배단지 0.7㏊를 확대할 방침이다.

곡성군과 옥과농협은 고품질 만감류 특화단지 조성을 위해 지난 4년간 제주도 만감류 농업 마이스터를 초빙해 현장컨설팅 8회, 선진지 견학 6회, 사업 추진 협의회 13회 추친 등 만감류 재배농가 확대 및 역량 강화에 노력해 왔다.

그 결과 지난 2월에는 재배 3년 만에 아열대성 작물인 천혜향 출하에 성공했다.

양 기관은 협력사업으로 연간 3억원의 자금을 조성해 만감류를 재배하는 농가를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부가가치가 높은 새로운 작목을 선호하는 청년농들의 성향을 반영한 것으로 자부담금에 대한 이자를 5년간 농협이 지원한다는 사항은 기반이 없는 청년들에게는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최근에는 옥과농협과 만감류 재배기술 현장컨설팅을 실시해 농가들의 큰 호응을 받기도 했다.

곡성군 관계자는 "앞으로 만감류가 지역 농가의 소득증대 작목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많은 지원 및 기술 보급에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곡성=김영필 기자

'노인복지 공약' 장성군, 효도권 지원 확대

年 18만원 → 24만원 증액·사용처 확대 등 건강권 추가

장성군이 효도권 지원 사업을 대폭 확대하며 민선 8기 노인복지 공약 이행을 이어가고 있다.

27일 장성군에 따르면 65세 이상 주민에게 분기별 4만5천원 연간 총 18만원을 지급하던 효도권을 24만원으로 확대해 지급한다.

효도권은 장성군이 독자적으로 추진해 온 노인복지 정책이다. 이·미용실과 목욕탕에서 현금처럼 사용할 수 있는 이용권이다. 어르신의 쾌적한 일상 유지를 돕고 있지만, 고령 주민의 영양 보충과 건강 증진도 함께 지원할 필요가 있었다.

군은 민선 8기 출범과 함께 음식 구입에 사용할 수 있는 '건강권'을 효도권에 포함하는 방안을 공약으로 제시, 관련 행정절차와 보건복지부 협의 등을 거친 끝에 오는 4월 말부터 시행하게 됐다.

효도권이 달라지는 점은 크게 세 가지다. 먼저, 지급 방식이 기존 종이권에서 충전식 바우처카드로 변경돼 사용이 편리해졌다.

연간 사용액이 18만원에서 24만원으로 33% 늘어난 점도 눈길을 끈다. 분기별 4만5천원에서 6만원으로 지원금이 상향됐다. /장성=김문태 기자

NH농협은행 담양군지부, 고향사랑기부금 전달

1천500여만원 기부

NH농협 담양군지부는 27일 "지난 26일 고향사랑기부금 1천500만원을 이병노 군수에게 전달했다"고 밝혔다.〈사진〉

이날 기부행사에는 이병노 군수, 이기복 NH농협 담양군지부장을 비롯한 임직원 20여명이 참석했다.

NH농협 담양군지부 직원들은 기부금을 마련하기 위해 지인 153명에게 '다시 찾고 싶은 담양! 늘 편안한 고향 담양'을 직접 소개하며 1천535만원을 조성했다.

지난해에는 관내 9개 농축협과 나주·신안·장흥·해남 농축협이 교차기부를 통해 2천860만원을 전달했고, 향우회원들도 고향사랑기부에 동참해 담양군이 전국 고향사랑기부 모금 1위의 성과를 이뤘다. /담양=정승균 기자

여수시, 고교학점제 안착 '총력'

10개 고교 교육경비 지원·설명회

여수시는 27일 "2025년 전면 시행을 앞둔 고교학점제의 안정적 교육과정 정착을 위해 적극 지원하고 있다"고 밝혔다.

고교학점제는 학생이 기초 소양과 기본 학력을 바탕으로 진로와 적성에 따라 과목을 선택하고 학점을 취득해 졸업하는 제도다.

시는 앞선 고교 교육과정의 변화로 지역 내 학교와 학생 등이 큰 혼란과 불안감 없이 교육과정에 적응할 수 있도록 일반계 10개 고등학교에 교육 경비를 지원한다. 지원 내용은 ▲학교 간 공동교육 과정 운영 등을 위한 교·강사 연수 프로그램 ▲학생들의 자기 주도 교육과정 이수를 위한 진로·학업 설계 프로그램 등이다.

여수시행복지원센터에서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 입시교육상담 전문가를 초청해 '고교학점제 집중설명회'를 개최했으며 교육정책 변화에 따른 이해도를 높였다. /여수=김진선 기자